

# 농약방제복 착용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유경숙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부교수

대부분의 농약은 인간에게 해를 미치는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복 노출된 살포자는 다양한 종류의 상해를 받게 된다. 많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농약살포자가 농약에 노출되는 이유로 방제복의 미착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적지 않은 농민이 경미하든 심각하든 간에 농약중독으로 추정되는 자각증상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직업병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농부들은 직업적 상해의 일종으로서 농약노출에 의해 적지 않은 건강상의 위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작하는 작물의 종류, 발생하는 질병 또는 작물 생장과정에서의 필요 등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나라별로 농약의 개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 농약의 종류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인간에 대한 위해성도 어떤 농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그 종류나 심각성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방제복 착용을 꺼리는 주 이유로서는 살포 중 고온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작업능률이 저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가의 농약 사용실태와 농약의 종류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농민이 방제복을 꺼리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농촌 실정이 맞고, 농민이 착용하기 편한 방제복의 디자인을 통해서 착용거부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전북지역의 논 및 밭농사 종사자들 228가구를 대상으로 살포하는 농약의 종류, 살포방법, 시간, 중독경험, 방제복 소요비용, 방제복의 착

용여부, 방제복의 종류, 방제복에서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자영농민으로서 비교적 작은 규모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방제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았다. 또 경작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에 살포가 가능하며,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고서도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녘에 주로 살포작업을 수행하였다.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였으며, 농약살포 농도는 지시서보다 희석비율이 높아 규정보다 높은 농도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농약이 농민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약효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농약의 해도 따라서 적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약의 피해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소규모의 경작규모 때문에 농약에 장시간 노출될 기회가 적어 농약의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대가 높아서 농약에 의한 중독증세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고연령에 따른 신체적 노화에 의한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의 농민들은 방제복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우리나라의 방제시기와 논밭의 구조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방제복의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기피하고 있어서 농약노출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드물게는 냉각방제복 같은 고가의 방제복의 착용을 시도한 적도 있으나 불편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방제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한국의 농촌실정에 맞는 농약방제복의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